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37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6월 2일 수요일(음력 4월 22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9부 능선 넘어

도의회 환도위, 오등봉·중부공원 동의안 원안 의결
9일 본회의 통과시 오는 8월초부터 토지 보상 시작
일부 토지주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준비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1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넘었다.

제주시는 동의안이 9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오는 8월 실시계획을 인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 더해, 도시공원 내 일부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임시회 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부대 의견을 통해 용수 공급·하수 처리 대책과 함께 공원 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사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동의안이 오는 9일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제주지역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민간이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인 오등봉·중부공원은 오는 8월 11일 공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9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아파트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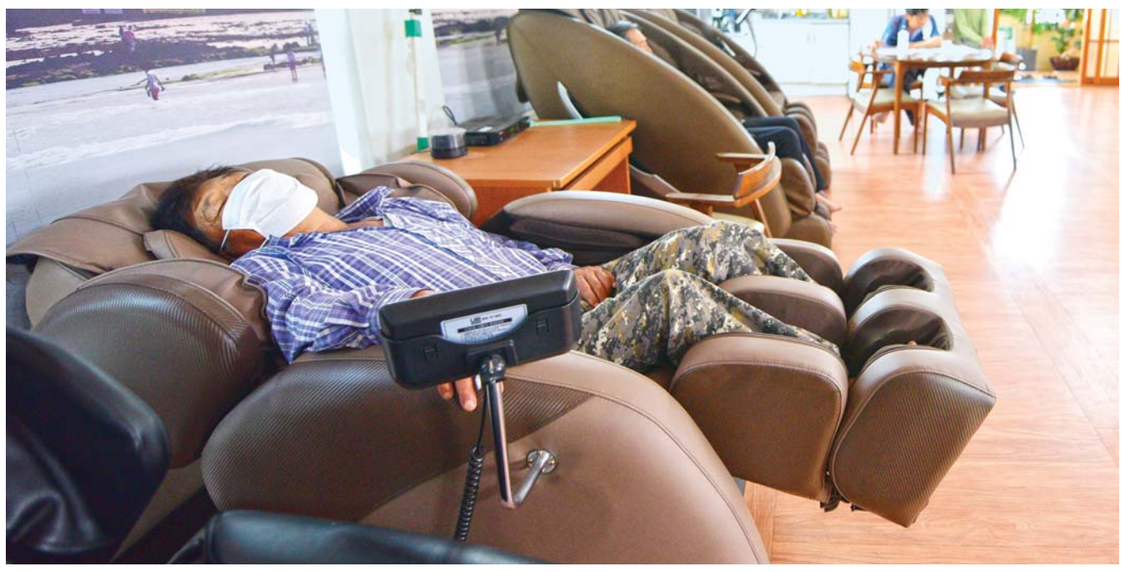
제주시가 목표한 실시계획 인가 시점은 오는 8월 초다. 이후 시는 1년 6개월 간 토지 보상에 나선 뒤 2025년쯤 사업을 완료한다. 시는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로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논란 끝에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이미 여러 토지주들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도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오등봉공원 비공원 부지에 있는 땅 한 곳을 9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매입해 토지주의 양도세 감면을 도왔다며 지난달 26일 관련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백신 접종 마친 경로당 어르신들 1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경로당에서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어르신들에 한해 경로당 이용이 허용된다. 이상국기자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참여자 모집

도,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국내·외 12명씩 선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UCLG(세계지방정부연합)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에 참여할 외국인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레지던시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bit.ly/3ugOWRX)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주소지가 제주이거나 도내 학교 재학 또는 졸업을 한 제주출신 청년(만19세~39세)이다.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 면접을 통해 국내·외 청년 각각 12명씩 선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064-800-9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가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레지던시 기간인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에 대한 항공편, 숙박, 식사는 물론 사전 온라인 강의도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공동 창작 결과물을 UCLG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상을 수상한 이진욱 작곡가, '희망을 여행하라'의 저자 이혜영 작가, 중앙대학교 조소과 베른트 할프헤르 교수, 생태건축가 유니박 등 4명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4~26일 해비치호텔… 팬데믹 등 대응 방안 모색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는 24~26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Mikgail Gorbachev)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 인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가해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66개가 운영된다.

우선 포럼 첫째 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된다.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코로나 학번: 팬데믹의 현재와 미래',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등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고민과 주제들로 세션을 구성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프랑수와 올랑드 전 프랑스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개회식과 전체 세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열리는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세션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원희룡 도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제 및 국가적,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개회식에는 G20 출범의 주역이었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태국 최연소 총리이자 아세안의 상징적 리더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화상으로,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장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도 동시 세션에 참여한다. 고대로기자

제주 코로나19 1일 18시 기준 누적 확진 1050